

社会的 측면에서

안 계 춘 박사

〈연대사회학과장〉

최근 우리 社會의 各分野에서 “우리의 處地를 정확히 認識하고 거기에 적절한 行動으로 대처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이 세미나의 主題인 “우리 社會가 要求하는 看護”도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解釋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看護活動分野에서도 그동안 看護事業에 대한 우리 社會의 要求가 무엇인가를 등한히 해왔다는 反省에서 이 모임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看護事業도 다른 活動分野와 마찬가지로 우리 社會의 여러가지 條件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우리 社會의 要求를 잘 알자”는 이번 Seminar의 主題은 지극히 당연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討論의 題目은 “國家保健施策과 看護事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保健이나 看護分野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國家保健施策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看護事業의 計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國家保健施策이 國家保健의 向上을 도모하는 方向으로 擴大되고 있으며 따라 看護事業에 대한 要求도 增大되고 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막연한 認識에 토대를 두고, 社會學을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가보전시책에 따른 看護事業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점 또는 고려해야 할 점들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한 社會의 各

活動分野는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國民保健의 向上은 누구나 추구해야 할 價値로 인정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分野와 관계 없이 그 분야에서만 地上天國이 될 것을 期待하기는 어렵습니다. 國家保健施策이나 國家保健은 經濟發展의 程度, 技術(Technology) 發達의 程度, 國民의 教育水準 등 다른 要因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國家保健施策이나 看護事業은 그 社會의 要求를 客觀적으로 파악하여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研究가 필요할 것입니다. 看護事業이 社會의 要求에 부응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量的인 側面과 質的인 側面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量的인 側面에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社會에서 必要로 하는 만큼의 看護員을 養成하는 것입니다. 社會에서 필요로 하는 看護員의 量이 과연 얼마만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용이한 일이 아니며 어떤 기준에 따라서 量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여하튼 看護員의 社會的 需要에 따른 적절한 供給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需要에 비해 供給이 모자랄 때 看護員 개개인의 收入이나 社會的 評價는 높아지겠지만 많은 國民들이 적절한 看護의 惠澤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需要에 비해 供給이 많게 되면 看護員의 利益과 간호원에 대한 社會的 評價가 낮아지고 國家的으로는 資源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大韓看護協會같은 機關에서는 우리 社會에서 필요로 하는 量의 看護員을 養成하도록 調節하는 機能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國家保健施策이 擴大됨에 따라서 看護事業에 대한 要求도 커질 것이라고 前提한다면 看護員의 需要도 늘어날 것입

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看護員의 量産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社會의 需要를 고려한 간호원의 양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量的側面에서 또 한가지 문제는 看護人力의 地域間 不均衡 문제입니다. 특히 農村과 都市間의 不均衡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의료시설이 都市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 아래서는 看護人力의 都市偏在은 불가피한 現象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保健施策이 확대 됨에 따라서 農村地域에서의 看護人力의 需要가 늘어날 것으로 豫想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看護人力의 양성제도하에서 農村地域에서 일할 수 있는 看護員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간호교육기관 자체가 都市(특히 서울)에 편중되어 있고 看護員을 지망하는 學生들이 大部分 都市의 生活背景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都市의 生活背景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農村地域에서 일할 動機와 熱意를 갖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農村地域에서 일할 看護人力은 그 地域 出身 중에서 선발하여 양성하는 방안을 考慮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看護人力의 量에 영향을 미치는 한 要素는 看護人力의 海外就業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간호협회의 세미나에서 本格的으로 취급되었으므로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만 우리나라 看護人力의 海外就業은 國內 看護人力의 需給과 긴밀한 관련하에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量的 문제입니다만 質의 問題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社會에서 要求하는 看護業務(Nursing care)의 水準이 어느 程度인가를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看護業務의 水準은 地域에 따라 狀況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우리 社會에서 要求하는 간호업무 수준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社會에서 大學教育을 필요로 하는 看護業務의 量, 專門學校정도의 教育을 필요로 하는 看護業務의 量, 高等學校 정도의 教育을 필요로 하는 看護業務의 量이 각각얼마나 되는지를 正確하게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看護人力을 養成해야 될 것입니다. 즉, 質的인 水準

을 考慮한 量的 調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덜어 놓고 높은 質的 水準의 看護人力을 많이 養成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人力과 技術이 우리 社會에서 活用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人力과 資源의 낭비일 뿐이며 그리하여 그러한 人力이 海外로 流出된다면 그것은 어느나라를 위한 看護教育이냐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看護業務에는 門外漢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看護員의 '水準'이 어느 程度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막연한 짐작으로는 우리 社會에서 요구하는 看護員의 質的 水準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質的인 側面에서 또 한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看護業務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醫師들의 看護事業에 대한 認識과 期待입니다. 잘은 모릅니다만 看護活動分野에서는 看護業務의 專門性과 獨立性을 強調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렇지 못했던 때 대한 反作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看護業務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醫師들이 간호사업에 대하여 간호원들이 자신의 業務에 대하여 가지는 認識과 똑같은 認識과 期待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시 막연한 판단이긴 합니다만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즉, 간호원들이 自身들의 활동에 대하여 가지는 認識과 醫師들이 간호업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認識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많은 數의 醫師들은 看護員이 醫師를 도우는 일을 하고 醫師에 연속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저는 어느 立場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논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두 專門分野의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活動에 대하여 가지는 認識과 期待에 큰 差異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強調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兩方의 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自己의 立場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 다른 사람들의 認識과 期待도 無視할 수 없는 現實的인 與件입니다. 그러므로 看護事業에 있어서 專門性이나 獨立性을 主張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긴밀한 關

聯이 있는 두 專門分野의 協助를 強調하는 것이 더욱 重要합니다.

質的인 側面에서 마지막으로 考慮해야 할 점은 國民들이나 患者들이 看護業務에 대한 認識과 期待입니다. 看護業務의 궁극적인 對象이 一般國民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많은 國民들이 看護業務에 대한 올바른 認識과 正當한 期待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實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國民들에 대한 啓蒙教育이 필요하며 한편으로는 그러한 實情을 고려에 넣은 看護事業의 展開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看護事業이 現實的인 社會的要求나 實情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만 그것은 理想을 포기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결

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看護事業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目標은 늘 간직하고 추구되어야만 하지만 그 過程에서 우리 나라의 現實的인 與件을 重視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個人이나 集團의 利益보다 社會全體의 利益을 重視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兩者는 많은 경우에 일치하지 않지만 그러지 않은 例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이 兩者가 일치하는 상태는 물론 바람직한 것입니다만 이 兩者가 갈등을 일으킬 때에는 社會全體의 利益이 우선적으로 考慮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看護事業을 展開해 나가는데 있어서 國民全體의 保建向上, 社會全體의 利益을 重視하는 精神이 더욱 要求됩니다.

장학 및 연구기금 모금을 위한

연구계획서 모집

간호사업에 종사하는 회원 여러분, 본 대한간호협회 연구 및 기금관리 위원회에서는 간호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활발한 연구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사부, 세계보건기구, 가족계획협회, 「유니셀」과 같은 기관에서 모금하고자 다음과 같이 귀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집요령>

1. 연구제목 : 문교부에서 지정한 전문학교 간호교육 교과과정 시행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2. 연구계획서 작성 양식 : 연구자 소속(), 연구책임자 직, 성명(), 연구비용연구예산액(), 참여자()
 - ① 연구과제명
 - ② 연구의 필요성
 - ③ 연구 목적
 - ④ 내외 연구동향
 - ⑤ 가설의 설정
 - ⑥ 연구방법 개요
 - ⑦ 연구 일정표
 - ⑧ 실행계획 또는 세부계획
 - ⑨ 기대되는 성과 및 활용방안
 - ⑩ 소요경비 산출
3. 채택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답첨금 : 50,000원
4. 응모마감일 : 1975. 12. 4
5. 제출처 : 교우부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일체 반환치 않음